

인사말

2007년 첫 해외사무소를 개설한 법무법인 지평이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2곳에서 시작한 해외사무소가 이제는 9개가 되었습니다.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시와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확고하게 자리잡고, 우랄산맥과 티벳고원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평은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외에서 수많은 업무를 함께 처리해왔습니다.

지평의 해외사무소와 서울 본사는 고객들의 해외 현지법인과 서울 본사를
동시에 자문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고객들이 성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신 많은 고객들 덕분에 한국 로펌 중
최고의 해외전문성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지평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사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고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미 해외사무소가 있는 지역에서는 현지 전문성의 깊이와 폭을
더욱 심화 확대하여 고객기업들이 직면하는 비즈니스상의 이슈와 리스크를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외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저희 지평의 글로벌리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켜드리는 한편, 추가적인 해외사무소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이고,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법인 지평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드리으로써 조력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양영태

